

태고총림 선암사 제29대 주지 진산식

14일, 총림 5원장 등 임명도...해초 종정 "총림다운 선암사 되길"

태고총림 선암사는 3월 14일 대웅전 앞 마당에서 제29대 주지 진산식을 봉행했다. 새 주지 설운 스님은 이날부터 4년 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행사에는 태고종 종정 해초 스님, 총무원장 인공 스님, 원로의원을 비롯하여 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해초 스님은 법어를 통해 "근세 사람들은 공과 사를 구분 못하고, 지식과 지혜를 혼동하여 사찰과 사회가 혼란스럽다. 사찰과 단체의 대표들은 이를 잘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하며, 맑고 깨끗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앞으로 선암사가 환골탈퇴해 총림다운 선암사가 되어 주기를 종도 여러분들에게 당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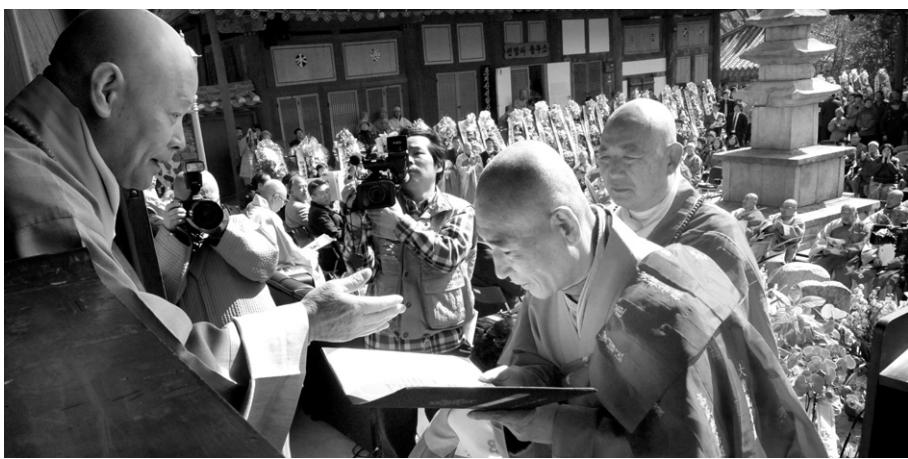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격려사에서 "새 날을 맞아 설운스님과 선암사 대중스님들

이 화합의 정신으로 하나돼 선암사가 걸은 길보다 더 먼 곳을 바라봐야 한다"며 "종단의 도제양성의 핵심도량이자 수행제일 도량의 모습을 더욱 견고히 하여, 전남 불교계를 하나로 묶는 한국제일도량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법어에 앞서 설운 스님은 취임사에서 "선암사는 1500여 년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수많은 선지식을 배출한 도량이다. 50여 년 갈등의 시대를 벗어나 선암사를 사부대중이 환희심 나는 도량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종정 해초 스님으로부터 총림 소임자에 대한 위촉장과 임명장 수여가 같이 진행됐다.

총림 5원장 위촉에는 회주 금용 스님, 선원장 상명 스님, 강원장 설운 스님, 율원장



태고종 종정 해초 스님이 설운 스님에게 임명장을 받고 있다.

도월 스님, 염불원장 호산 스님이, 총림 원로위원회에는 해운·해봉·지암·원명·금용·지하·설봉·성천·성관·납파·일호 스님이 각각 위촉됐다. 종무소 소임자는 주지 설운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총무에는 승범 스님, 교무에는 상중 스님, 재무에는 무안 스님, 문사에는 만허 스님, 규정에는 청각 스님, 템플스테이 담당은 진봉 스님, 하영철 신도회장이 각각 임명을 받아 소임을 시작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상무대 무각사, 초군장교 환영식

1500명 장교·군속에 호신불카드 등 전달

조계종 광주전남전법단(단장 대요, 이하 전법단)은 3월 11일 장성 상무대 무각사 군법당에서 1500여 초군장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환영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전법단이 군포교 활성화와 군부대 내 장교불자 양성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군중교구장 자광 스님은 법문을 통해 "상무대에서 오늘의 만남이 불교와의 좋은 인연을 통해 자신의 삶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에게는 전법단 수의사업을 위해 마련된 호신불카드, 합장주와 점심 등 900만원 상당의 물품이 지급됐다.

한편, 초군장교는 충남 계룡대에서 장교 합동임관식을 통해 초군장교가 된 육군 소위들로 장성 상무대에서 보병·포병·기계화·공병·화생방학교 등 5개 병과별로 16주간 훈련을 받고, 각 부대에 배치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외국인 인권 불교계가 보호한다

김해 대법론사 "외국인에 자비 전할 것"

김해 대법론사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외국인 인권보호법률위원회 경남지부센터'를 개소했다.

대법론사는 센터를 통해 외국인들에게 불심을 전하고 우리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예정이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문화재급 석불입상 남원서 발견

나말여초 조성, 약사여래 혹은 미륵불 추정

남원문화원(원장 이병재)은 "석불이 마을 뒷산 기슭에 있다"는 마을주민 제보를 바탕으로 2011년 10월부터 4차례에 걸쳐 수지면 유암리 일대를 탐사한 결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석불을 발견하고 남원시에 발견신고서를 접수했다"고 최근 밝혔다.



석불의 전체 높이는 드러난 부분만 192cm, 발 이하 부분은 땅속에 묻혀 있어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나 2m이상으로 추정된다.

남원문화원 이병재 원장은 "불상의 전체적인 구성미와 조각 수법으로 보아 통일신라 후기에서 고려시대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석불 머리 왼쪽 일부 부분이 결실됐지만 육계와 백호공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어르신 제2인생 불교계가 도와요

거창·고창 복지시설서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불교계가 수탁 운영하는 거창군삶의쉼터와 고창군노인복지회관은 최근 어르신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거창군삶의쉼터(관장 도영)는 3월 9일 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어르신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노인일자리사업 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교육을 개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14일, 고창군노인복지회관(관장 도원)도 어르신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강당에서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및 소양



연등 만드는 미 조지아대 학생들 청도 운문사(회주 명성, 주지 흥륜)는 3월 13~15일 미 조지아대학 학생 17명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이들의 방문은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과 조지아대 이향순 교수와의 인연으로 진행되고 있다. 운문사를 찾은 조지아대 학생들은 주 정부가 선발전국비 장학생으로 2년마다 한국 전통사찰을 찾아 한국 및 불교문화 체험을 하고 있다. 조지아대 학생들은 운문사에서 법고 관람, 조석예배, 발우공양, 연꽃 등 만들기 및 만다라 그리기 등을 통해 한국불교 문화를 체험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자비의 쌀' 나누기

불교계 단체에서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자비의 쌀을 전달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3월 13일 '제5회 자비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갖고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에게 1560kg의 쌀을 전달했다.

자비의 쌀은 이날 금호타이어 해고자 대책위원회, 아름다운공동체 광주시민센터, 광주여성센터 등 39개 단체 실무자에게 전달됐다.

특히 이날 지원한 자비의 쌀은 광주전남지역 각 사찰 스님과 불자들이 심시일

반 정성으로 모은 쌀로 이뤄져 의미를 더했다.

행사를 준비한 실무자는 "소중한 먹거리인 쌀의 의미를 되새기고, 광주전남지역에서 통일 인권 환경 노동 복지 언론 교육 이주민 사업 등 우리 이웃과 세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많은 이들의 정성이 담긴 쌀을 나누고자 한다"고 행사의 의미를 말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2008년부터 4480kg의 쌀을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전달해 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간화선·'임제록' 특강 등 진행

조계종 부산聯, 2012 교육일정

조계종 부산연합회는 최근 2012년 교육일정을 발표했다. 이번 교육일정은 상반기 간화선과 '임제록' 특강, 하반기 명상과 선, 간화선 특강으로 나뉘어 진

행된다. 간화선 특강은 월암 스님(한산사 용성선원장)을 강사로 4월 16일~6월 25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한다. '임제록' 특강은 무비 스님(동국대 前 역경원장)을 강사로 6월 27~29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조동섭 기자

부산 기장군불교聯, 정오 스님 회장 취임

제11대 부산 기장군불교연합회 회장이 취임 법회가 3월 9일 기장군청 대회의실에서 봉행됐다.

행사에는 정여 스님(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오규석 기장군수, 정종복 기장군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부산 기장군불교연합회 신임 회장 정

오 스님은 1990년 범어사에서 벽파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93년 범어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현재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이며, 사회복지법인 보현도량, 미애원 등에서 사로 활동 중이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입학식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회주 우학)는 3월 13일 대구근절에서 동영상을 통해 경산도량 외 9곳 도량의 동시 입학식을

해 주1회에 한번 공부하게 된다. 우학 스님은 "교리를 배우야 비로소 불자가 될 수 있다. 불교 공부는 모든 불자생활의 기본이며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암환자를 위한 특별 메시지



저는 천의선도 창도자며 대체의학 연구가 삼봉 김영생 스님입니다. 저는 13세부터 조부님 강요에 못이겨 육경신 정진수련에 입신해서 82세가 된 오늘까지도 인간은 나면서 가는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듯이 가는길은 없을까하는 상념 중에 1977년 음력 1월 15일 육경신 정진수련중에 천신의 계시를 받고 너무나 황당무계한것 같지만 천신의 메세지이니 믿고 내 주변에 맡기합

천의선도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란 책자를 만천하에 공개 하면서

환자 몇분에게 은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복용시켰더니 3,4개월이 지나 몸이 편안하다 하기에 병원진찰을 받아보니 암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하지 않습니다. 소문에 따라 저를 찾아온 암환자가 180여명이 넘는데 한사람도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전립선,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일주일에 1번씩 4,5차례 기를 넣어 드렸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3000여명이 넘는데 재발된분이 한분도 없습니다.

나는 한국의 민중의술을 검증받기 위해 미국 오하이오주 주지사님의 초청을 받고 1998년 7월초에 미국에서 오하이오주 주립대학 병원에 가서 담당의사들의 병증제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면서 환자들에게 의료봉사 활동을 5일간 했는데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나온 환자가 오후에 공원 산책을 혼자서 하고 돌아왔다고 담당 의사가 신화같은 기적이라고 합성을 지르며 천의선도 치료법을 전수받았습니다.

7월 14일에는 오하요주 주지사님이 한국의 민중의술이 세계에 으뜸이라고 찬사를 하시며 감사패를 주셨고, 17일에는 콜럼버스 시장님이 명예시민장도 주셨습니다. 2011년 월드코리아에서 세계속의 한국인 자랑스런 민중의술 대체의학 부문 대상도 받았습시다 만든 제 나이가 82세, 나의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이세상에 전무후무한 천하제일의 천의(天醫) 하늘이 준 의술을 물어두고 갈순없어 이 세상에 공개해서 한가정에 한사람씩 천하제일의 명사가 있다면 건강한 가정에 행복하 사회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되어 일반에 공개하면서 천의선도 대체의학을 전수받을 분 기다립니다. 나의 안내문에 의심이 나거든 강동구 천호2동 333-45 전화 02-568-4955 대가연 통증의원 원장 의학박사 심요택 박사님을 만나 보십시오. 심박사님은 암 환자를 대체의학의 자연요법을 체험해 보시고 신화같은 기적이라고 감탄하시며 시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대체의학을 전수받는 분에게는 일체 전수비를 받지 않습니다.

책값 50만원에 필요하면 은용해기 35만원, 매선침 100개 내지 150개 구입하면 준비완료.

천하제일의 명사가 되는데 소요시간은 천의선도를 전수 받고 실습시간 육각수를 만드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환신 받는데 10분, 5시간이면 넉넉하고 암환자를 치료 하려면 육경신수련 60일에 하루씩 6회 참석 수련하시면 됩니다. (오방신장의 관습을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을 원하거든 행복을 원하거든 천의선도를 전수받으십시오.

천의선도 태종선사 삼봉 김영생 스님 합장배래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483-39 삼용빌딩 403호

연락전화 : 010 - 4933 - 4528

일반인이 자기 가정을 돌보기 위해 천의선도